

복음을 전한 용감한 여성들: 전도부인 I

** 이것은 원래 한인여선교회 소식지인 <여선교회 소식> 2005년 12월호 - 2006년 3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김명래 전국연합회 총무가 쓴 글이다.

미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린 지 2년이 지났다. 102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특별히 개교회에서 여성들은 여선교회를 통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봉사를 통해 교회와 한인사회를 이끌어 왔으며 오늘도 그러한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다.

여-선교-회는 이름 그대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모인 여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데, 한인 여선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있었다. 여선교회 역사를 보면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들어서 엄청난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한인 여선교회가 가진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며, 한인 여선교회가 전도부인(Bible Women) 사역을 어떻게 실행해 왔으며, 현재 한인 여선교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전도부인 선교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린 미 여선교회

동양의 고요한 나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한국은 18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외세 열강의 간섭으로 왕권은 쇠퇴하고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엄격한 유교사상으로 인한 계급차별과 부정부패로 여성과 아동, 하류 계층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래에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및 농사 짓는 노동력으로 간주될 뿐 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이름도 없이 팔자와 운명을 한탄하며 살고 있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의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1884년 오하이오주 레벤나 지방의 여선교회 모임에서 한 익명의 여성이 "어둠 속에 있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 복음과 교육 사업에 씨 달라"고 지정헌금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 감리회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사 공회'는 당시 오하이오 연회 여선교회 임원이었던 메리 스크랜톤을 1885년 한국의 첫 여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메리 스크랜톤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한 명의 학생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후에 이화학당에 온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하류층 출신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북 감리회 초기 여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중점을 교육에 두어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설립하였다.

봉건체제하 한국여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 찾아

이러한 선교사역은 전통 봉건주의체제와 가부장 사회 속에서 이름도 없이 불행한 운명을 안고 살아왔던 한국여성들에게 새로운 자기개발과 인간 해방의 기회를 주었다. 불우한 여성, 비천한 계층의 여성들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불행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전도부인이 되었다.

남감리회 여성교회 선교사역

다음에서는 남감리회 여성교회의 전도부인 사역과 초기 전도부인 교육이 어떻게 여성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는지 알아본다.

북감리교회보다 10년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남감리교회 여성교회는 1897년 조세핀 캠벨을 첫 여성교사로 파송했는데, 조세핀 캠벨은 1898년 어린 소녀 몇 명으로 '배화학당'을 시작하였다. 당시 학교를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한국인에게 한국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교육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선교정책이 실천되었다.

1903년 배화학당 출신 여성들이 처음으로 배출되어 지방학교 교사, 전도부인이 되어 선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사업과 함께 설립된 '배화학당 예배당'은 여성들만을 위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 전도부인들의 활발한 전도사역으로 교인수가 증가되어 새 예배당인 '종교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다. 이 결과 남감리회의 교회 설립과 초기 기독교 역사의 주체는 주로 여성들이었다.

남감리회 여성교회의 전도부인 사역과 교육

남감리회 최초의 전도부인은 북감리회 선교사, 메리 스크랜톤에게서 교육받은 김세라와 백루시였는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기독교는 '나라에 흉년을 들게 만든 불길한 종교'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많은 배척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부인들은 일 년 동안 2천 5백명을 방문, 복음을 전하며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판매하였다.

초기 전도부인들의 이러한 "씨 뿌리는 수고"로 인해 조선사회에 기독교가 계속 전해질 수 있었다. 특별히 김세라는 1904년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들 모임을 교인 가정에서 가졌는데, 여기서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 기독교 기초 교리와 한글을 가르쳤다. 이 모임은 나중에 수구문(광희문) 교회로 발전하였다.

최초의 여성목회자 양성기관

전도부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조세핀 캠벨은 1898년 서울에 '여성 사경반 (Bible Class)'을 열어 전도부인 후보자들을 교육하였는데, 나중에는 개성과 원산에서도 여성 사경반이 조직되었다. 1905년에는 '송도여자 성경학원'이 설립되어 후에 정규학교로 발전하였고, 1920년에는 남북 감리교회 여성교회가 협력하여 '협성여자신학교'를 설립해 여성 전문목회자를 양성하게 되었다. 여성 사경반과 성경학원을 통해 배출된 전도부인들에 의해 기독교 복음은 지방으로까지 널리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 설립 및 성장의 주체 세력이 전도부인들과 그들에게 전도 받은 평신도들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이다.

1898년부터 12년간 남감리회 선교부가 파송한 초기 전도부인들은 모두 57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이름과 생애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조선사회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복음사역에 목숨을 걸고 활동했으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공헌한 숨은 공로자들로서 그들의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